

복합문화공간 전일빌딩245, 토요일 문화행사 '풍성'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공감'
11월까지 인문중심 콘텐츠 선배
작가와 만남·가족체험 등 눈길

광주시가 도심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에서 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 '공감'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받은 인문 투어를 비롯해 전일빌딩245 입주 기관과 연계한 인문 강연 '전일245 클래스',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 등 인문 중심 콘텐츠를 선보인다.

'공감'은 매주 토요일 전일빌딩 245에서 열리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공연·전시·플리마켓·체험활동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도심 속 문화쉼터 역할을 한다.

광주시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일245展', '내 생애 첫 전시'를 비롯해 전일빌딩245 특화 게임으로 개발된 AR게임인 'AR게임투어·명탐정 전일'이 마련돼 시민 참여도를 높인다.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는 오는 14일과 28일 두 차례 진행되며 '훈모노'의 성해나 작가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김기태 작가가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광주시가 전일빌딩245에서 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 '공감'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받은 인문 투어를 비롯해 전일빌딩 245 입주 기관과 연계한 인문 강연 '전일245 클래스',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 등 인문 중심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전일스테이지 공연 모습, '액션! 아트놀이터' 체험 행사.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체험 행사도 풍성하다. '액션! 아트놀이터'에서는 나비케이크 만들기, 나만의 페라리움 만들기, 강아지 보물 케이크 만들기, 모루로 만드는 탁상시계, 비누 속 이야기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대기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설치된 '전일뽕뽕오락실'에서는 에어바운스, 레트로 게임기, 아동용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엮는 청년 공감 프로젝트 '왓츠인마이북', 특색있는 팝업스토어를 만나볼 수 있는 북페어 '덕



질상점', 전일가요제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싱어송라이터스'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시간 및 사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전일마당 공식 누리집, 인스타그램(@jeonilmadang),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전일빌딩245는 광주의 역사와 시민 감성을 잇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힘 모은다

금지사, 中企 소통간담회서 대책 논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관련 의견수렴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여수 울촌산단에 본사를 둔 배관 공사·정비 전문기업 ㈜코인즈를 방문, 석유화학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어 여수지역 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여수지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여수 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다. 전국 석유화학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고용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 불안정, 중국산 저가 제품 확산, 수출 둔화, 고금리 등 복합 위기 요인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 설비 투자 위축, 고용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전남도는 지난 3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으며 정부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5월1일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설비 노후화와 고금리 자금 부담이 심각하고 숙련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정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전부터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안전장비, 4대 보험 기업부담금, 법정 의무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중소기업 용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1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수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조속 지정되도록 정부의 협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5월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며 "저리 정책자금 등 실질적 금융지원이 시급하고 전력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석유화학산업 특별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추경과 내년 본예산 등을 통해 3천700억원 이상, 최대 1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 기자

해설사와 함께하는 광주 도보여행 '첫선'

금도깨비극장길 등 4개 코스
11월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 기획한 '테마형 도보 해설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직접 코스를 구성하고 광주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설사의 생생한 현장 설명을 들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광주의 숨은 매력을 도보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광주시는 주요 관광지 18곳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해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설사가 직접 기획한 코스를 도보로 이동하며 해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프로스포츠 중심지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설프로그램은 광주의 정체성과 색다

른 매력을 전달하는 뜻깊은 문화 관광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도보 해설은 총 4개 코스로 구성되며 소요 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이다.

금도깨비극장코스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전일빌딩)에서 출발해 금남로공원-광주극장-도깨비골목, 오색고담길코스는 석서정에서 출발해-회경루-광주공원-광주향교-사직공원을 둘러본다.

광주의리단길코스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야외전시 석물-조씨정려-3·1운동탑-안중근숭모비-하서 김인후 상, 고백길코스는 김용학 고택-국립광주박물관 야외전시 석물-국립광주박물관 내부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전화(062-611-3624)나 전자우편(kctg@gito.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해설사의 전문성을 살려 광주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연례나 사망받는 인마의자
90년
선진인마기술집약체

올해 6월 파나소닉 인마의자 전 제품 특별 프로모션

최대 200만원 상당 혜택! | 기간 : 6/1 ~ 6/30

상세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MAN1

MAK1

MAJ7

MAF1

MA32

MAC3

MAC9

MA22

MA05

파나소닉 프라자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